

학교급별 상대대우법의 사용 실태

및 화법문화

-서술형 대우법 형태를 중심으로-

류성기*

차 례

1. 서론
2. 학교급별 대우법 사용 실태
3. 각 대화 상대자에 따른 학교급별 화법문화
4. 결론

[국문초록]

학생들의 대우법 사용 실태는 친구들이나 형 등에게는 아주 낮춤말이나 두루 낮춤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두루 낮춤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친구나 형들에게 높임말을 쓰는 학생들이 소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3학년생들은 매우 적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조금 늘어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로 올라갈수록 많아진다. 그러다 대학생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생들에 비하면 적게 나타난다. 삼촌이나 할아버지 등에게는 높임말을 주로 사용한다. 그 중에서 두루 높임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격식체인 아주 높임말은 삼촌 등보다는 할아버지 등에게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할아버지를 삼촌보다 더 높여야 된다는 화법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라고 본다.

*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sgryu@cue.ac.kr

남학생과 여학생은 아주낮춤이나 아주높임보다 두루낮춤이나 두루높임 표현을 많이 쓰나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격식체인 아주낮춤, 아주높임 형태를 좀 더 많이 쓴다. 이는 성별로 존재한 성격, 대인관계 태도 등의 언어문화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경어, 아주낮춤, 두루낮춤, 두루높임, 아주높임, 격식체, 비격식체, 화법문화

1. 서론

우리 한국 사회는 사람들 사이에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수직적 사회이다. 이러한 상하관계는 삼국시대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조선시대 유교가 국가 이념으로 작용하면서 더욱 정립되었던 것 같다. 삼강오륜의 지켜야 할 덕목의 하나로 '장유유서(長幼有序)'가 있는데, 이러한 이념이 우리 사회를 어른과 아이 사이에 서열을 만들고, 나이를 중시하고, 그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 사회로 만들었을 것이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속담은 하찮은 것까지도 위아래를 따지는 사회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류성기(20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후기중세국어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높임법 및 겸양법 등이 여러 문헌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났다.¹⁾ 그러나 이러한 대우법²⁾ 체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

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류성기(2017)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상대를 대우하는 높임법은 사회적 신분, 성, 연령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나타나고, 시대적 사상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현대사회는 예전과 달리 수평적인 관계로 많이 변화되어 가지만 뿌리 깊게 자리한 수직적 관계는 계속 존재하고 있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높임말과 낮춤말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우법 형태나 각 형태의 사용빈도에 있어서는 사용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논자는 높임말이나 낮춤말의 사용은 나이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찾아본 후 초등학교 3학년부터 3년 간격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성인이 된 대학교 3학년까지 어떤 대우법 말들을 사용하여 말하는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³⁾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많은 연구는 성인들이 사용하는 상대를 대우하는 말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성인들이 사용하는 대우하는 말이 연령에 관계없이 사용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우법에 맞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막연히 초등학교 학생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어떤 격식적인 말체는 사용하지 않고, 비격식적인 높임말만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 왔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상대대우법과 관련지어 어떤 말들을 사용하는가를 연구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논자는 대우법 발달 단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초, 중, 고, 대학교 학생 각각 100명 내외의 학생(남학생 50명, 여학생 50명 내외)들을 대상으로 상대 대우법에 따른 말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물론 후기중세국어 이전 문헌에서도 존칭에 대한 말은 쓰였다. 김종훈(1984:16-17)에 의하면 신라 향가 서동요에서 '善花公主主隱'의 '主'는 '님'을 나타내는 높임말이고, 또 전재관(1984:217)에 의하면 小倉進平은 그의 저서 '향가급이두연구'에서 '이다, 습 따위'를 겸양(敬讓)을 나타낸다고 한 것들을 보면 대우법과 관련된 표현은 삼국시대 때부터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상대를 대우하는 말들에 대한 문법을 높임법, 존비법, 경어법, 대우법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상대에 대해 높임말, 낮춤말 등을 사용하여 말하는 문법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대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3) 높임말 사용에는 연령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나타나지만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연령에 따른 높임말 사용에 국한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연령에 따른 대우법 사용에 대한 연구는 논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대학생까지를 3년 간격으로, 또 남녀를 구분하여 조사 연구 분석하고 이를 화법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는 보지 못했다. 류성기(2018,2019)에서 본 연구의 일환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상대대우법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승녕(1961), 허웅(1976, 1984), 이기문(1972), 안병희·이광호(1990) 등은 중세국어에 대한 연구이며, 이유기(2001)의 근대국어 경어법 연구 등이 있고, 고영근·구본관(2008)를 포함한 많은 현대국어의 경어법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모두 성인들의 경어법에 대한 연구이다. 아동들,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 특히 상대를 대우하는 말의 발달 모습을 보여주는 연구는 없다. 그리하여 논자는 상대를 대우하는 상대대우법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를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방법은 연구대상이 된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면접하여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사용하는 대우 언어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만나 조사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일부 학생에 편중된 조사가 될 수 있어 여기에서는 여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한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하순에서 12월 초순까지 이루어졌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진주에 위치한 가람초등학교 3학년, 6학년 학생 각각 100명 안팎이고, 중학교는 경상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학교 3학년 학생 남녀 50명씩 100명 안팎이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는 남학생은 대아고등학교 3학년 50명 안팎이고, 여학생은 삼현여자고등학교 3학년 50명 안팎이다. 대학생은 진주교육대학교 3학년 남녀 학생 100여명 안팎이다. 남녀 각각 50명씩 정확한 수로 하려 하였으나 조사의 어려움 상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다. 설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설문 내용은 비교적 대우의 체계가 확실히 드러나고, 대우법 체계가 드러나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은 말(의문문)과 대답하는 말(서술문)에 국한하여 구성하였으나 본고에서 지면 제약상 대답할 때 사용하는 말 형태에 국한하기로 한다.

설문조사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대대우법 발달 단계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우리말에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에 따라 말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에는 이러한 대우법(높임법)에 따른 언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대우법(높임법)에 따른 말하기를 어느 시기부터 어느 정도로 사용하게 되는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지는 시험이 아닙니다. 정답을 찾을 필요는 없고, 평소에 자기가 쓰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혹 예문과는 다르게 사용한다면 () 안에 다른 말을 써 주십시오.

2017년 11월 일

00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000 드림

0. 답변자 인적 사항 (해당 난에 0표 해 주십시오.)

1)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 (남, 여)

(답변 방법) 각각의 번호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의 () 안에 ◎표, 많이 쓰는 말은 ○표, 조금 사용하면 △표를 적어 주십시오. 쓰지 않

치)은 '각각의 빈도수x해당 표시의 점수/전체 수x3점(=최대치)'⁴⁾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표, ○표, △표 등 3가지를 다 똑같이 표시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 곧, ◎표나 △표는 쓰지 않고 ○표만 한 학생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표한 것으로만 인정하여 정리하였다. 다른 학생과의 불균형이 있지만 응답자의 뜻을 고려하여 그렇게 정리하였다. 또 '방언을 쓴다면 그 방언에 해당하는 표준말에 ◎, ○, △ 등을 적어주십시오.'라고 하였기에 방언 표기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각 문항의 7번의 '다른 말'을 적도록 했는데, 이렇게 적은 말들은 논자가 판단하여 같은 높임의 등급에 배정하여 등급화 하였다. 예를 들어 '내가 가져갔는데'와 같은 말은 두루낮춤 '-어' 등급에 포함시켰다.

2. 학교급별 대우법 사용 실태

2.1.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우법 사용 실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친구끼리 대화 시 대답을 할 때에는 대부분 격식체 아주낮춤 '-다'와 비격식체 두루낮춤 '-어' 형태를 사용하여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비격식체 '-어요' 형태를 사용해서 말하는 학생들도 아주 조금 있으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아주낮춤과 두루낮춤 형태 중에서는 두루낮춤 형태를 3배 가까운 사용가중치로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1-1>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큰 차이는 아래 각주

4) '분모'는 전체 학생수를 '◎표'의 값인 3으로 곱한 수이고, '분자'는 해당 항목(예: -다, -습니다 등) 각각의 빈도수에 해당 값을 곱한 수를 더한 수이다. '(◎표 빈도수x3)+(○표 빈도수 x 2)+(△표 빈도수 x 1)'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학생, 여학생 모두 격식체보다는 비격식체 많이 사용하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격식체인 아주낮춤 형태 '-다'를 많이 쓰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비격식체 두루낮춤 '-어'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⁵⁾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에 대한 표는 지면의 제약 상 사용가중치만 제시하겠다.

<표 1-1> 초 3-친구

남녀 82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10	64				1
○표	17	7	1			2
△표	10	3				1
사용가중치	74/246	209/246	2/246			8/246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형이나 언니들과 대화할 때에도 친구들과 대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격식체 아주낮춤과 비격식체 두루낮춤 형태를 사용하여 말한다. 그러나 예사낮춤 형태(-네)나 아주높임 형태(-습니다), 두루높임 형태(-어요)를 사용하여 말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보다는 조금 늘었다. 그리고 사용가중치는 아주낮춤이나 두루낮춤 형태 모두 줄었다. 그러나 형 등에게 말할 때에는 격식체 아주낮춤 형태보다는 비격식체 형태 '-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학생들이 친구들에게보다 많아졌다. 이를 보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형이나 언니는 아직 높임의 대상이라 생각지 않지만 아주 낮추

5) (초 3-남, 여-친구)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34/108	77/108	2/108			4/108
여 사용가중치	40/138	132/138				2/138

는 대우를 하는 학생들은 적어졌다. <표 1-2>와 같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형이나 언니에게 대답할 때에 아주낮춤 형태나 두루낮춤 형태를 사용하는 가중치의 비중은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비슷하다. 그러나 아주 높임이나 두루높임 형태는 여학생은 사용하지 않으나 남학생은 조금 사용한다. 대신 여학생은 예사낮춤 형태를 조금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⁶⁾

<표 1-2> 초 3-형, 언니

전체 82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11	56	1		1	4
○표	5	10	2		2	
△표	3	4			1	1
사용가중치	46/246	192/246	7/246		8/246	13/246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삼촌이나 이모와 대화할 때에는 <표 1-3>과 같이 대부분 격식체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와 비격식체 두루높임 형태 ‘-어요’를 사용하여 말한다. 그 중에서도 비격식체 두루높임 형태 ‘-어요’를 많이 사용한다. 두루낮춤 형태 ‘-어’를 써서 말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적은 편이다. 초등학교 3학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삼촌이나 이모는 높임의 대상이라는 인지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3>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삼촌이나 이모에 대한 높임말 사용은 양성 모두 격식체 높임말보

6) (초 3-남, 여-형, 언니)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18/108	74/108			8/108	13/108
여 사용가중치	28/138	118/138	7/138			

다는 비격식체 높임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격식체 높임말과 비격식체 높임말 사용가중치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격식체 높임말 ‘-습니다’를 많이 쓰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비격식체 높임말 ‘-어요’를 많이 사용한다.⁷⁾

<표 1-3> 초 3-삼촌, 이모

전체 82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6			9	58
○표					13	9
△표	1	1			2	2
사용가중치	1/246	19/246			55/246	194/246

그렇다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는 어떠한가. 두루낮춤이나 예사낮춤 형태를 사용하여 말하는 학생들이 극소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 격식체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와 비격식체 두루높임 형태 ‘-어요’를 사용하여 말한다. <표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격식체 아주높임 형태보다는 비격식체 두루높임 형태를 두 배 정도 많이 사용한다. 그렇지만 격식체 아주높임 형태의 사용이 삼촌이나 이모에게 사용하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격식을 갖추어 아주 높여 말하여야 한다는 높임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어떠한가. 남학생, 여학생 모두 비슷한 비중으로 격식체 높임말과 비격식

7) (초 3-남, 여-삼촌, 이모)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1/108	9/108			28/108	71/108
여 사용가중치		10/138			27/138	123/138

체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삼촌이나 이모에게보다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격식체 높임말 ‘-습니다’를 더 많이 사용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삼촌 등에게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⁸⁾

〈표 1-4〉 초 3-할아버지, 할머니

전체 82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2	2		25	48
○표					8	15
△표	1	1	1		3	
사용가중치	1/246	7/246	7/246		94/246	174/246

지금까지 살펴본 초등학교 3학년 대우법 사용 실태를 정리해보면 3학년 학생들은 친구들이나 형이나 언니에게 낮춤말을 사용하여 대화를 한다. 형이나 언니에게는 그래도 높임말을 쓰는 학생들이 친구들에게보다 높게 나타나나 대부분 낮춤말을 사용한다. 형에게는 친구에게보다 두루 낮춤말을 많이 사용한다. 삼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한다. 삼촌이나 이모보다 할아버지 등에게 높임말 쓰는 비중이 높다. 또 높임말 중에서는 두루높임말을 많이 쓰나 할아버지 등에게는 삼촌 등에게보다 아주높임말을 많이 사용한다. 할아버지 등에게는 격식을 차려 아주 높이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두루낮춤이나 두루높임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

8) (초 3-남, 여-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1/108	4/108	3/108		35/108	68/108
여 사용가중치		3/138	4/138		59/138	106/138

2.2.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대우법 사용 실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친구끼리 말할 때 대답하는 말의 대우법 형태는 예사낮춤 형태, 예사높임 형태, 아주높임 형태 및 두루높임 형태를 극소수 학생들이 사용하기도 하나 대부분 아주낮춤 형태 ‘-다’나 두루낮춤 형태 ‘-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그 중에서도 두루낮춤 형태를 아주낮춤 형태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사용한다. 친구이지만 아주 낮추는 것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형태인 두루낮춤 형태를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2-1>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은 둘 다 두루낮춤 형태를 아주낮춤 형태보다 많이 사용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두루낮춤 형태 사용 비중이 훨씬 많다. 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수는 아니지만 아주 높임이나 두루높임 형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사용한다.⁹⁾

〈표 2-1〉 초 6-친구

남녀 90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16	58				1
○표	23	21	1	2	1	1
△표	4	2	1		3	2
사용가중치	98/270	218/270	3/270	4/270	5/270	7/270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형이나 언니에게 사용하는 서술형 말의 대우법 형태도 아주낮춤이나 두루낮춤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아주낮

9) (초 6-남, 여-친구)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51/108	68/108	3/108	2/106		1/108
여 사용가중치	47/162	150/162		2/162	5/162	6/162

춤보다는 두루뎛춤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친구끼리 말할 때보다는 예사뎛춤, 예사높임, 아주높임, 두루높임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두루높임 형태 ‘-어요’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보다 상당히 많아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형이나 언니를 친구보다는 서열상 높은 관계에 있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2-2>와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은 각주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둘 다 아주뎛춤보다는 두루뎛춤 형태를 많이 사용하지만 여학생이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주높임 형태나 두루높임 형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¹⁰⁾

<표 2-2> 초 6-형, 언니

전체 90명	아주뎛춤 (-다)	두루뎛춤 (-어)	예사뎛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16	55			3	8
○표	11	19	1	1	1	2
△표	5	1	2	1	2	1
사용가중치	75/270	204/270	4/270	3/162	13/270	29/270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삼촌이나 이모에게는 <표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 두루높임 형태 ‘-어요’나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를 써서 말한다. 그 중에도 두루높임 형태를 써서 말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삼촌이나 이모 등에게 사용하는 대우법 형태는 각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10) (초 6-남, 여-형, 언니)

	아주뎛춤 (-다)	두루뎛춤 (-어)	예사뎛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25/108	81/108	4/108	2/108	2/108	7/108
여 사용가중치	50/162	123/162		1/162	11/162	21/162

미세한 차이점은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표 2-3> 초 6-삼촌, 이모

전체 90명	아주뎛춤 (-다)	두루뎛춤 (-어)	예사뎛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2	10		1	13	60
○표	4	8			21	12
△표	2			2	2	
사용가중치	16/270	46/270		5/270	83/270	204/270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대화할 때에는 주로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와 두루높임 형태 ‘-어요’를 사용하여 말한다. 그 중에서는 두루높임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뎛춤이나 두루뎛춤 형태도 소수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삼촌이나 이모에게 말할 때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볼 때 이들 소수의 학생들에게는 아직 높임의식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표 2-4>와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은 각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큰 차이는 없으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아주뎛춤이나 두루뎛춤 형태를 약간 많이 쓰고 있다.¹²⁾

11) (초 6-남, 여-삼촌, 이모)

	아주뎛춤 (-다)	두루뎛춤 (-어)	예사뎛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4/108	16/108		1/108	30/108	82/108
여 사용가중치	9/162	30/162		4/162	53/162	122/162

12) (초 6-남, 여-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뎛춤 (-다)	두루뎛춤 (-어)	예사뎛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3/108	7/108	1/108	2/108	43/108	70/108
여 사용가중치	19/162	14/162	2/162	2/162	67/162	115/162

〈표 2-4〉 초 6-할아버지, 할머니

전체 90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6	5			20	55
○표	2	2	1	1	24	13
△표		2	1	2	2	
사용가중치	22/270	21/270	3/270	3/270	110/270	191/270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 대한 것도 정리해 보면 6학년 학생들도 친구들이나 형 등에게 높임 형태를 약간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아주낮춤이나 두루낮춤 형태를 사용한다. 그 중에서는 두루낮춤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삼촌이나 할아버지 등에게는 두루높임이나 아주높임 형태를 사용하나 두루높임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삼촌 등에 비하여 할아버지 등에게는 격식체 아주높임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삼촌이나 할아버지 등에게 낮춤 형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2.3.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우법 사용 실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서술형의 대우법 형태는 주로 두루낮춤 형태나 아주낮춤 형태를 사용하여 말한다. 그 중에서도 두루낮춤 형태를 사용하여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3, 6학년에 비하여 예사낮춤, 예사높임, 아주높임 및 두루높임 형태를 쓰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표 3-1>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각주에서 볼 수 있듯이 남, 여 학생 모두 아주낮춤 형태보다 두루낮춤 형태를 많이 쓰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주낮춤 형태를 많이

쓰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두루낮춤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두루높임 형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사용한다.¹³⁾

〈표 3-1〉 중-친구

남녀 100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27	56	2			
○표	27	29	1	4	2	1
△표	12	2	6	6	3	4
사용가중치	147/300	228/300	14/300	14/300	7/300	6/300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형이나 언니들에게 말할 때에는 주로 아주낮춤 형태 ‘-다’나 두루낮춤 형태 ‘-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그러나 아주높임 및 두루높임 형태를 사용하여 말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친구들과 말할 때보다 많이 높아졌다. 형이나 언니에게 높임말을 써야 한다는 의식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2>와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각주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아주낮춤보다는 두루낮춤 형태를 많이 사용하나 여학생이 두루낮춤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른 대우법 형태의 사용은 둘 다 비슷하다.¹⁴⁾

13) (중-남, 여-친구)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84/150	102/150	8/150	9/150	3/150	1/150
여 사용가중치	63/150	126/150	6/150	5/150	4/150	5/150

14) (중-남, 여-형, 언니)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49/150	74/150	2/150	6/150	16/150	33/150
여 사용가중치	55/150	94/150	8/150	9/150	16/150	35/150

〈표 3-2〉 중-형, 언니

전체 100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25	40	1	3	7	14
○표	13	21	3	2	4	10
△표	3	6	1	2	3	6
사용가중치	104/300	168/300	10/300	15/300	32/300	68/300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삼촌이나 이모에게 사용하는 대우법 서술형 형태는 주로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나 두루높임 형태 ‘-어요’를 사용한다. 그 중에서 두루높임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아래 <표 3-3>의 ‘△표’에 분포된 숫자가 말해주듯 때로는 낮춤 형태들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격식체 형태를 많이 쓰나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두루낮춤이나 두루높임 등의 비격식체 형태를 많이 쓰고 있다.¹⁵⁾

〈표 3-3〉 중-삼촌, 이모

전체 100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1		1	2	23	66
○표		4	1		25	14
△표	4	3	2	5	2	1
사용가중치	7/300	11/300	7/300	17/300	121/300	227/300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사용하는 서술형 대우

15) (중-남,여-삼촌, 이모)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4/150	2/150	5/150	7/150	68/150	96/150
여 사용가중치	3/150	9/150	2/150	4/150	53/150	131/150

법 형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는 두루높임 형태 ‘-어요’이고, 그 다음으로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이다. 그러나 <표 3-4>의 △표 사용자 수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학생들은 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아주낮춤이나 두루낮춤, 예사낮춤이나 예사높임 형태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을 보면 각주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격식체인 아주높임 형태를 쓰는 비중이 높다.¹⁶⁾

〈표 3-4〉 중-할아버지, 할머니

전체 100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2	34	55
○표	1	1	1	1	22	20
△표	3	2	2	6	2	1
사용가중치	5/300	4/300	4/300	14/300	148/300	206/300

중학교 학생들의 대우법 사용 실태를 정리해 보면 친구들이나 형 등에게 낮춤말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친구나 형들이라 하여도 높임말을 쓰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늘어났다. 삼촌이나 할아버지 등에게는 높임말을 주로 사용하지만 낮춤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낮춤말이나 높임말 모두 비격식체인 두루낮춤말이나 두루높임말을 많이 사용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격식체인 아주낮춤, 아주높임 형태를 비격식체인 두루낮춤이나 두루높임 형태보다 많이 쓴다.

16) (중-남,여-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3/150	2/150	2/150	9/150	79/150	86/150
여 사용가중치	2/150	2/150	2/150	5/150	69/150	120/150

2.4.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우법 사용 실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친구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서술형 대우법 형태는 주로 두루낮춤 형태 ‘-어’를 많이 쓰고, 다음으로 아주낮춤 형태 ‘-다’를 많이 쓴다. 그러나 <표 4-1>에서 볼 수 있듯이 적지만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나 두루높임 형태 ‘-어요’를 쓰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친구들 사이에 서열의식이 더 많이 존재하여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은 각주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은 아주낮춤 형태 ‘-다’를 두루낮춤 형태 ‘-어’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초, 중학생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다. 이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는 격식적인 관계가 비격식적인 관계보다 비중이 더 높게 존재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¹⁷⁾ 여학생은 초, 중학생처럼 두루낮춤 형태 ‘-어’를 아주낮춤 형태 ‘-다’보다 많이 사용한다.¹⁸⁾

<표 4-1> 고-친구

남녀 102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28	42			1	4
○표	31	24			1	4
△표	3	1	3	5	6	6
사용가중치	149/306	175/306	3/306	5/306	11/306	26/306

17) 이는 마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등과 같은 격식적인 용어가 사용된 것과 같은 현상일 것이다.

18) (고-남, 여-친구)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85/153	77/153	2/153	4/153	6/153	11/153
여 사용가중치	64/153	98/153	1/153	1/153	5/153	15/153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형이나 언니들에게 대답하는 말의 형태는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두루낮춤이나 아주낮춤 형태, 특히 두루낮춤 형태를 많이 사용하여 말한다. 그리고 다른 서술형 형태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두루높임 형태 ‘-어요’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형이나 언니들에 대한 높임 의식이 존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의식은 각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높게 나타난다. 남학생이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나 두루높임 형태 ‘-어요’를 여학생보다 훨씬 많이 사용한다. 이는 화법 상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서열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¹⁹⁾

<표 4-2> 고-형, 언니

전체 102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17	34	2		2	10
○표	14	19	2	2	3	6
△표	2	3	3	4	4	5
사용가중치	81/306	143/306	13/306	8/306	16/306	47/306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삼촌이나 이모에게 대답하는 말의 형태는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두루높임 형태 ‘-어요’나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때로는 아주낮춤이나 두루낮춤, 예사낮춤이나 예사높임도 사용하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은 각주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학생은 여학

19) (고-남, 여-형, 언니)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44/153	63/153	9/153	5/153	15/153	38/153
여 사용가중치	37/153	80/153	4/153	3/153	2/153	9/153

생에 비해 격식체인 아주높임 형태를 많이 쓰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두루높임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²⁰⁾

〈표 4-3〉 고-삼촌, 이모

전체 102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1				17	57
○표	2	7		2	12	24
△표	3	3	4	2	5	2
사용가중치	10/306	17/306	4/306	6/306	80/306	221/306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말할 때 대답하는 말의 대우법 형태는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두루높임 형태와 아주높임 형태를 사용하여 말한다. 특히 두루높임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한다. <표 4-3>과 <표 4-4>를 비교해 보면 할아버지 등에게 대답할 때에는 삼촌이나 이모와 대답할 때보다 두루높임 형태 ‘-어요’보다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를 사용하는 가중치가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삼촌이나 이모보다는 할아버지 등에게는 좀 더 격식을 차려 말해야 한다는 화법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은 각주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차이점은 없다. 그러나 남, 여학생 모두 삼촌이나 이모와 대화할 때보다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를 사용하여 말하는 사용가중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삼촌이나 이모보다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는 격식을 차려 말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은 결과라고 볼 수

20) (고-남-삼촌, 이모)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6/153	10/153	3/153	5/153	46/153	100/153
여 사용가중치	4/153	1/153	1/153	1/153	34/153	121/153

있겠다.²¹⁾

〈표 4-4〉 고-할아버지, 할머니

고-전체-102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2	1			38	38
○표	1		2	1	15	27
△표	2	3	3	3	3	1
사용가중치	10/306	6/306	7/306	5/306	147/306	169/306

고등학생들의 대우법 사용 실태를 정리해 보면 친구들이나 형 등에게는 아주낮춤말이나 두루낮춤말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친구나 형들이라 하여도 높임말을 쓰는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보다 많이 늘어났다. 삼촌이나 할아버지 등에게는 높임말을 주로 사용하지만 때로는 낮춤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만 존재한다. 낮춤말이나 높임말 모두 두루낮춤말이나 두루높임말을 많이 사용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격식체인 아주낮춤, 아주높임 형태를 비격식체인 두루낮춤이나 두루높임 형태보다 많이 쓴다.

2.5.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우법 사용 실태

대학교 학생들의 친구 간에 대화할 때 대답하는 말의 대우법 형태는 대부분 두루낮춤 형태 ‘-어’와 아주낮춤 형태 ‘-다’이다. 친구 간에는 낮춤

21) (고-남,여-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6/153	2/153	4/153	4/153	78/153	80/153
여 사용가중치	4/153	4/153	3/153	1/153	69/153	89/153

말로 사용하여 말한다. 극소수의 학생이 아주높임이나 두루높임 형태를 사용하여 말하기도 하지만 큰 의미 있는 수는 아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높았던 친구 간의 높임말 사용이 대학에 와서는 <표 5-1>에서와 같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비격식적인 대학사회 의식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남학생과 여학생과의 차이점은 남학생은 높임 표현을 거의 안 쓴다고 볼 수 있는데 반해 여학생의 소수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다.²²⁾

<표 5-1> 대-친구

남녀 110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33	50			1	1
○표	23	31				
△표	9	2			1	4
사용가중치	154/330	214/330			4/330	7/330

대학생들이 형이나 언니들과의 대화할 때의 서술형 대우법 체계는 <표 5-2>와 같다. 대학생들도 두루 낮추어 말하거나 아주 낮추어 말한다. 주로 두루 낮추어 말하기를 한다. 그러나 친구와 말할 때보다는 두루 높이어 ‘-어요’를 사용하여 말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 <표 5-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루높임이 98/330의 사용가중치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들이 형에 대한 높임의식이 발달되었기 때문일 터인데, 형이나 선배에 대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존중의 의식이 바탕이 된 화법문화에서

22) (대학-남-친구)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77/147	73/147				1/147
여 사용가중치	77/183	141/183			4/183	6/183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격식체보다는 비격식체인 ‘-어요’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단순한 서열의식보다는 서열의식은 있지만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심리에 바탕을 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는 각주에서 볼 수 있듯이 두루낮춤 형태의 사용에서 차이가 난다. 대학교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하여 오빠나 언니에게 두루낮춤 형태 ‘-어’를 훨씬 많이 사용한다. 나머지 형태의 사용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살갑게 지내는 정서를 반영한 화법문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³⁾

<표 5-2> 대-형, 언니

전체 110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17	40			1	23
○표	18	25			2	12
△표	4	5			2	5
사용가중치	91/330	175/330			9/330	98/330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삼촌이나 이모와 대화할 때에는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두루낮춤 등의 낮춤 형태를 써서 말하는 학생도 조금 있지만 주로 두루높임이나 아주높임 형태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둘 중에서는 두루높임 형태를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삼촌이나 이모를 높임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아주높임

23) (대-남,여-형, 언니)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42/147	62/147			4/147	48/147
여 사용가중치	49/183	113/183			5/183	50/183

보다는 두루높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삼촌이나 이모는 격식적인 관계보다는 비격식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대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화법문화 상 자신과 삼촌이나 이모를 아주 높은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삼촌이나 이모에게 두루낮춤 형태를 사용한 대학생들도 약간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격식체 아주높임체 보다는 비격식체 두루높임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한 중에서도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격식체 아주높임체를 많이 사용한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화법문화에 차이를 둔 배경에서 나온 현상이리라 추정해 본다.²⁴⁾

〈표 5-3〉 대-삼촌, 이모

전체 110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2			18	67
○표	1	2	1		24	19
△표		1			1	
사용가중치	2/330	11/330	2/330		103/330	239/330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대화할 때 서술하는 말의 대우법 형태는 <표 5-4>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두루높임이나 아주높임 형태를 사용하여 말한다. 그 중에서 두루높임 형태를 많이 사용하거나 삼촌이나 이모보다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는 좀 더 격식을 차려 격식체 아주높임 형태를 많이 사용하여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삼촌이나 이모보다 더 어른이어서 좀 더 격식을 차려야

24) (대-남,여-삼촌, 이모)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4/147	8/147	2/147		66/147	90/147
여 사용가중치	4/183	9/183			37/183	149/183

되는 관계에 있다는 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화법 현상일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은 남학생은 격식체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를 비격식체 ‘-어요’ 형태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데, 여학생은 비격식체 ‘-어요’ 형태를 격식체 ‘-습니다’ 형태보다 많이 사용한다.²⁵⁾ 이러한 차이점은 관계를 중시하는 여자들의 특성상 격식적인 것보다는 비격식적이면서도 친근감 있는 표현을 하는 화법문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표 5-4〉 대-할아버지, 할머니

전체 110명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표	1	1	1		35	54
○표	1	3			22	24
△표						1
사용가중치	5/330	9/330	3/330		149/330	211/330

대학생들의 대우법 사용 실태를 정리해 보면 친구들이나 형 등에게 주로 아주낮춤말이나 두루낮춤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형 등에게는 비격식체 높임말 ‘-어요’를 쓰는 학생들이 중, 고등학생들에 비해 많이 늘었다. 관계 중시 의식에 따른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삼촌이나 할아버지 등에게는 높임말을 주로 사용한다. 그 중에서 두루높임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점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아주낮춤, 아주높임 형태를 두루낮춤이나 두루높임 형태보다 많이 쓴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격식적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5) (대-남,여-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낮춤 (-다)	두루낮춤 (-어)	예사낮춤 (-네)	예사높임 (-소)	아주높임 (-습니다)	두루높임 (-어요)
남 사용가중치	3/147	4/147			85/147	75/147
여 사용가중치	2/183	5/183	3/183		64/183	136/183

3. 각 대화 상대자에 따른 학교급별 화법 문화

여기에서는 제Ⅱ장에서 살펴본 표 자료에 의거하여 친구, 형, 삼촌, 할아버지 등과 대화할 때에 그 각각에 대하여 대답하는 말의 학교급간의 변화 등을 화법 문화적인 차원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3.1. 친구들끼리의 화법문화

친구들끼리는 초3 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대부분 아주낮춤말과 두루낮춤말을 주로 사용한다. 그 중에는 두루낮춤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²⁶⁾ 이는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아주 낮추어버리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조금 낮추는 심리에서 표출된 화법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속에서도 조금 눈여겨 볼 현상은 친구들끼리도 높임말(예사높임, 아주높임, 두루높임)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조금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높임 형태를 사용하는 현상이 초등 3학년(8/246)²⁷⁾보다는 초등 6학년(16/270)이 많아지고, 중학교 3학년(27/300)은 더 많아지고, 고등학교 3학년(42/306)은 더 많아졌다가 대학교 3학년(11/330)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수준보다도 더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친구들끼리도 서열이 존재하는 경직된 화법문화가 강화되었다가 대학에 와서는 그러한 서열 의식이 많이 없어지고 동등한 친구 관계로서의 의식이 바탕이 된 화법문화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 고등학교에서는 엄격한 규율과 격식과 서열 속의 사회

26) '아주낮춤 대 두루낮춤' 사용가중치의 비가 초3은 '74/246 : 209/246', 초6은 '98/270 : 218/270', 중3은 '147/300 : 228/300', 고3은 '149/306 : 175/306', 대3은 '154/330 : 214/300'이다.

27) 이 수는 사용가중치를 나타내는 수로서 예사높임, 아주높임, 두루높임의 사용가중치를 더한 수이다.

에서의 화법문화였었는데, 대학에서는 그러한 사회가 깨어지고, 자율성과 동일 대학교 학생으로서의 동질성과 다양성과 상호존중성의 사회에서 형성된 결과로 두 곳의 삶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화법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2. 형, 언니와의 화법문화

형이나 언니에게 사용하는 말도 아주낮춤말이나 두루낮춤말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두루낮춤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보다는 아주낮춤말이나 두루낮춤말의 사용가중치가 많이 줄고, 대신 아주높임말이나 두루높임말의 사용가중치가 높아졌다. 각 높임말(예사높임, 아주높임, 두루높임)의 가중치를 합한 가중치가 초3은 21/246, 초6은 45/270, 중3은 115/300, 고3은 71/306, 대3은 107/330 인데, 이 수치는 친구들끼리 높임말을 사용하는 수치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이는 형이나 언니에게는 아직 높임말을 쓰지 않은 화법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학생들에게는 서열 등의 의식 속에서 형이나 언니를 높임의 존재로 의식하고 있는데 따른 화법문화에서 나타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형이나 언니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화법문화는 초3 때 가장 낮다가 초6에 높아지고, 중3 때는 더 많이 높아졌다가 고3 때 조금 낮아지고, 대3 때 다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학생 때부터 형이나 언니에게 높임말을 써야 한다는 의식이 개인의 성격, 형과 동생과의 관계 요소, 가정문화 요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바탕이 된 화법문화에서 나타난 것이라 본다.

3.3. 삼촌, 이모와의 화법문화

삼촌이나 이모 등에게는 대부분 아주높임말이나 두루높임말을 사용하나 두루높임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는 삼촌이나 이모 등에게는 높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격식을 덜 차리고 높인다는 비격식적 높임의 화법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낮춤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아주낮춤과 두루낮춤과 예사낮춤을 합한 낮춤말 사용가중치를 보면 초3학년이 20/246, 초6이 62/270, 중3이 18/300, 고3이 27/306, 대3이 13/330 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삼촌이나 이모 등에게 낮춤말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대학생 때 가장 낮다. 이는 6학년 학생들의 발달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영향인지는 몰라도 초6 때 삼촌이나 이모에게 낮춤말 사용 의식이 가장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중3부터 대학생까지는 삼촌이나 이모 등을 낮추는 가중치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성장해 가면서 삼촌이나 이모에 대한 화자의 대인관계 의식 성장 및 존중심리 발달에 기인한 화법문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4.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화법문화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대화에서도 대부분 아주높임말이나 두루높임말을 사용하지만 두루높임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삼촌이나 이모에게 사용하는 말에서보다는 격식체인 아주높임말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아주높임 형태 '-습니다' 사용가중치를 '삼촌 : 할아버지'로 비교해 보면 초3은 '55/246 : 94/246' 초6은 '83/270 : 110/270', 중3은 '121/300 : 148/300', 고3은 '80/306 : 147/306' 대3은 '103/330

: 149/330'이다. 아주높임 형태를 삼촌 등에게 사용할 때보다 할아버지 등에게 사용할 때의 사용가중치가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두루높임 형태 '-어요'의 사용가중치는 삼촌 등에게 사용할 때보다 할아버지 등에게 사용할 때 낮아졌다. 이는 삼촌보다는 할아버지에게는 좀 더 격식을 차리고 말해야 한다는 화법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낮춤말을 사용하는 가중치도 삼촌에게 사용하는 낮춤말 사용가중치보다 낮다. 이러한 화법현상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서열상 가장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식에서 발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4. 결론

대우법의 사용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미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보면 대우법 사용은 유치원이나 그 이전부터 사용할 수도 있다. 처음 말 배울 때 부모님이 '주세요' 등의 어휘를 가르치면서부터 대우법 사용이 시작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생들은 친구들이나 형 등에게는 아주낮춤말이나 두루낮춤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두루낮춤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친구나 형들에게 높임말을 쓰는 학생들이 소수 있다. 이러한 높임말 쓰는 현상은 초등학교 3학년생들은 매우 적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조금 더 늘어나고, 중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생보다 많고,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보다 많다. 그러다 대학생 때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는 많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고등학생들에 비하면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것은 가정환경, 개인적 성격, 화법 교육적 차원에서 조사 연구될

필요가 있겠다.

삼촌이나 할아버지 등에게는 주로 아주높임말과 두루높임말을 사용한다. 그 중 두루높임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한 중에도 할아버지 등에게 삼촌 등보다는 격식체 아주높임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할아버지를 삼촌보다 더 높여야 된다는 화법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다. 삼촌이나 할아버지 등에게도 낮춤말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있으나 6학년 때 가장 높고 나머지는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것도 가정, 개인, 화법 사회 문제 차원에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격식체 표현보다는 비격식체 표현을 많이 쓴다. 남, 여 학생의 차이점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격식체 아주낮춤, 아주높임 형태를 비격식체 두루낮춤이나 두루높임 형태보다 많이 쓴다는 점이다. 이는 성별로 존재한 성격, 대인관계 태도 등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대우법 실태와 그 현상에 대한 의미를 화법문화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의 바탕이 된 설문조사가 진주에 위치한 몇몇 학교에 한정되어 지역적 한계가 있다. 아울러 대우법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성격, 가정환경,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에서 보완하기로 하겠다.

[ABSTRACT]

The Honorific Word Use Realty and Culture by School Level

-On the Focus on the Predicative Form-

Ryu, Sung-Gi(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is the study of students' use the honorific word. When they dialogue with friends, they usually use extremely low form or informal lower form. And when they dialogue with elder brothers or elder sisters, they ususally use extremely low form or informal lowering form or informal raising form beside some student who use informal raising form. But when they dialogue with aunt or uncle or grandfather or grandmother they use informal raising form or formal raising form except the minimum students who use low form. They use more informal form than formal form. Maybe I think that it was the reason why it is a dialogue.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s that female students use more informal form than formal form. I think that this is the difference on the basis of sexual speaking culture difference.

Keyword : honorific word, extremely low form, informal lowering form, informal raising form, extremely high form, formal, informal, speaking culture

[참고문헌]

□ 기본자료

중학교 3학년 설문조사 자료(2017)

□ 단행본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172-173.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류성기(2016), 『초·중·한국어 교사를 위한 문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박이정, 218-227.

박종철·오충연(2001),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삶』, 월인, 149-165.

이유기(2001),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문장종결형식의 연구』, 역락, 26-72.

이승녕(196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309-316.

허웅(1976), 『옛말본』, 과학사, 117-119.

이기문(1972), 『개정판 국어사 개설』, 168-170.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239-249.

황병순(2018), 『한국문화론』, 박이정, 22-34.

□ 논문

김종훈(1984), '존칭에 관한 소고', 김종훈(1984) 편저, 『국어경어법 연구』, 집문당, 9-18.

류성기(2017), '춘향전에 나타난 높임법 연구: -열녀춘향수절가 완판 84장분을 대상으로-', 『진주한글』 제3호, 한글학회진주지회, 73-99.

류성기(2018), '초등학교 3학년 상대대우법 연구', 『우리말글교육』 17, 우리말글 교육학회, 1-26.

류성기(2019), '중학교 3학년 상대대우법 사용 실태 및 교육 방법 연구', 『우리말글교육』 제18집, 우리말글교육학회, 1-30.

전재관(1984), '‘습’ 따위의 겸양사의 산고', 김종훈(1984) 편저, 『국어경어법 연

구』, 집문당, 217-242.

허웅(1984), '15세기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김종훈 편저(1984), 『국어경어법연구』, 집문당, 188-192.

접수일 : 2019. 03. 18 총평일 : 2019. 04. 20 게재확정일 : 2019. 04 .22